

산업부, 태국과 신산업·녹색경제 협력... 교역·투자 확대

태국, 아세안 경제규모 2위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신속 개시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동참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날리니 타베신 태국 통상대표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태국이 양국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신산업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달개비에서 태국의 날리니 타베신(Nalinee Taveesin) 통상 대표와 만나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정상회담의 경제·통상 분야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한국과 태국은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태국의 경제규모는 아세안 2위로, 작년에는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협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수출

2위로,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지난달 대 아세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4.3% 증가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양국은 우선 ‘2022~2027 한-태국 공동동행계획’에 따라 교역·투자 확대, 신산업 및 녹색경제 분야의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 협력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신속히 개시해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장관급 무역공동위를 재개해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또 양국의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무탄소(CF) 연합 이니셔티브에 태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날리니 타베신 통상대표는 “태국의 신정부도 한국과의 신산업과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영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관련 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12년간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 약 48.6억 부과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이 12년간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고, 서로 남는 제품을 사고 팔며 시장 점유율도 조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법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6개사로 당시 롯데제과·롯데푸드·

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드라이아이스를 납품했다.

이들은 2005년 신규 사업자인 어프로티움(당시 덕양화학)이 진입해 가격 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각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며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는데, 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장 확대

참여 시장 53개 → 90개로 확대
구매금액 최대 40% 환급 가능
김장재료 수산물 적기 공급

해양수산부가 19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기존 53개 시장에서 90개 시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20일부터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 수가 43개소 늘어난다. 해수부가 김장철을 언급하는 등 김장거리로 쓰이는 굴·새우젓·생선 등을 구매할 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해당 시장 90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한도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2만 5000원~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권, 구매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권을 받는다.

해수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며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해 행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

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참여 시장 등 세부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부담없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환경부,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 입법 예고

내년 3월부터 시행 위해 마련

환경부가 19일 ‘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감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14일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에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적용 관련 사항 등이다.

또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6일 오전 4시 24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도로가 비에 침수, 소방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인구·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명시했다. 이 경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UAE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 방문... 해외수출 본격화

김동철 사장, 현장경영 강화

한국전력이 해외원전 수출을 위한 현장경영 강화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한 현장 경영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사장은 상업 운전 중인 바라카 원전 1~3호기를 둘러본 뒤 지난 5월 건설을 마치고 가동 준비에 착수한 4호기의 연료 장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사장은 현장 근무자들과 만나 “4개 호기가 동시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규모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임직원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UAE 원전 1~3호기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2015년 7월 원자로 건물 기초 콘크



김동철 한전 사장(왼쪽에서 3번째)이 바라카 원전시찰에 나선 모습. /한국전력

리트 타설을 시작한 마지막 4호기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연료 장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인 UAE 원전의 한 기 설비용량은 1400MW다. 현재 가동 중인 1~3호기 설비용량은 4200MW이며 4호기까지 추가로 가동되면 UAE 전력 수요의 약 25%를 담당한다.

아울러 김 사장은 한전이 UAE에서 수행 중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 송전망 건설 현장도 점검했다. 한전이 일본 규슈전력 및 프랑스전력공사(EDF)와 함께 2021년 12월 수주한 해당

사업은 바라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HVDC 방식으로 UAE 해상 원유 시추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사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카 부다비 행정청장과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을 만나 양국 간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의 지속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전은 “김 사장은 UAE에 이어 잠재 원전 도입국인 영국으로 이동해 오는 24일까지 현장 경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안전보건공, 건설업 특화 안전보건정보 제공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 구축

안전보건공단이 20일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안전상황판은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특화된 각종 안전보건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공단은 “기존에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며 “안전상황판은 지역별 날씨정보, 사망 사고 빅데이터와 연계한 해당 날짜의 과거 사망사고 사례, 위험성평가표 예

시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건설안전 이슈 ▲중대재해 사이렌 등 산재사고사망 속보 ▲민간 대형건설사의 각종 안전보건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상황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황판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휴게공간이나 식당 등 근로자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 정보 송출용 모니터(터치스크린 등)만 갖추면 간편하게 안전정보 표시가 가능하다.

/세종=김연세 기자